

“문화전당·아문화원 일원화 ‘인수인계TF’ 구성을”

노조 촉구...문화전당·문화원·노조 참여 조직·예산 등 원활 수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문화원)의 일원화 추진과 관련 '인수인계 TF' 구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지회는 8일 “원활한 일원화 수행을 위해 문제부가 주관하는 문화전당과 문화원 그리고 각 기관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조직인 ‘인수인계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9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2021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서 참석자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이 대국민 감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아마존 수출 500만 달러 달성 을 첫 선적식

14개사 23개 제품 24만달러 상당

전남도는 9일 올해 아마존 수출 목표액인 500만 달러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현재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은 27개사 63개 제품이 입점해 있으며, 이번 선적식에는 14개사 23개 제품, 약 24만6000달러 상당의 제품이 선적됐다. 특히 이번 선적식에는 올해 1월 첫 입점해 매출이 급상승인 가공전복과 유기농김 제품이 2만6000달러, 3만 달러 씩 추가 선적돼 수출길에 올랐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물 중 7개 스타품목을 선정해 미국 현지인의 입맛과 감성에 맞춰 개발한 12개 제품을 지난 1월 초부터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이 중 신안군 형제수산의 유기농 도시락김의 경우 입점 3주만에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마존에 입점한 7개 스타품목은 ▲여수시 (주)아름다운 견어물스낵 ▲순천시 매일식품(주) 장류 ▲광양시 다임매출영농조합 ▲고흥군 에덴

식품영농조합 유기농유자음료 ▲해남군 해남고구마식품(주) 고구마말랭이 ▲완도군 (주)에이스코리아 가공전복 ▲신안군 형제수산영농조합법인 유기농김 등이다. 전복의 경우 전남이 국내 생산량의 98.4%를 차지하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대부분 활전복 상태로 유통돼 그동안 미국 내 온라인 판매가 어려웠다. (주)에이스코리아가 수출중인 지속전복 제품의 경우 실온 유통이 가능토록 통조림으로 제작해 손질 작업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상진 전남남도 국제협력관은 “올해 500만 달러 온라인 수출을 목표로 입점제품 50개 이상을 추가하고, 캐나다, 영국 등 3개 국가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신규 개설할 계획이다”며 “브랜드관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전남 농수산식품이 현지인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해상풍력 선도기반 마련...큰 성과 나올 것”

김영록 전남지사, 실국장회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대통령과 함께 한 지역 균형 뉴딜투어 1호 행사는 전남에서 시도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일자리 사업을 잘 수행할 때 단단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신안 해상풍력단지조로 인해 목포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물류중심지와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 제조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전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주민들은 그 수익을 연금처럼 받게 된다”는 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이같이 언급한 자체가 굉장한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전남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작공에서 완공까지 5년이상 소요될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도록 특별법 제정과 원스톱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분부가 꾸러질 수 있도록 유도하자”며 “이를 위해 법령과 제도개선, 주민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부에 건의를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처음 시도한 것으로 사실 조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사항을 찾아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각종 세미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설 명절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연휴가 감염확산 차단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기 위해선 귀성자제와 함께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에 허술함이 없도록 빈틈없는 방역에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경찰·국세청, 부동산 안정화 민관협의체 가동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광주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광주시, 광주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건설협회, 광주은행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불법 거래 단속,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 검증, 거래 동향 모니터링,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현황과 함께 기관별 시장 안정화 추진 상황

을 공유했다. 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거래량이 줄어 매매자들이 거래를 미루고 관망하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공인중개사 15명은 거래 상황과 특이 동향을 살펴 광주시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외지인 집중 매수 등 동향을 파악해 불법 거래행위를 신속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아문화전당지회는 8일 “원활한 일원화 수행을 위해 문제부가 주관하는 문화전당과 문화원 그리고 각 기관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조직인 ‘인수인계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원과 문화전당 노동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문화원은 인건비 예산만 교부된 상태이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일원화가 될 때까지 사업비 예산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며 “사전준비에만 몇 달씩 걸리는 사업을 예산 없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노동자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원과 문화전당의 예산은 570억, 채용인력 571명으로 두 조직의 일원화는 인사이동하듯 책상만 옮기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원활한 일원화 수행을 위해서는 문제부가 주관하는 문화전당·문화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수인계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어떤 상황이든 공통적으로 권한, 조직, 서무, 시설, 자산 예산 등의 인수인계 실무수행할 실무진 구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각 기관의 사업성과와 결과물의 정리가 필요하며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문제부, 문화전당, 문화원은 19년과 20년 하반기에 인수인계 준비를 위한 두 번의 기회를 벌 개정만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쳤다”며 “올해는 이병훈의원의 법 개정만 바라보지 말고 기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TF’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건보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데이터 개발 유통 활성화 힘 모은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업무협약

광주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개발·유통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9일 영상을 통해 기관 간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보건 의료 데이터 공유, 분석, 기반 산업 육성, 안심 구역 공동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입주 지원 등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진료비 청구내역, 의료자원 등 2조9000억건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약으로 헬스케어 관련한 인공지능 서비스 연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보건의 중추적 전문 데이터 기관으로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 외 임직원일동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도입

자궁근종센터에서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증 치료

- 제 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진료 내용

산부인과, 내과, 유방·갑상선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자궁근종센터,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